『직지』의 내용분석을 통한 백운화상의 '무심'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usim' Presented by Baegun Hwasang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Jikji*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1. 서 론
2. 백운화상의 無心
3. 無念·無心의 배아(胚芽)
4. 無心의 발아(發芽)
5. 無心의 개화(開花)
6. 無心의 결실(結實)
7.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이 논문은 『직지』 상권 '中國 禪師'조(條)에 표방되는 무심(無心)에 대하여 서지적(書誌的)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직지』 상권의 내용에서 ① '무념·무심'의 처음 등장을 그 배아(胚芽) 단계로 보고, ② 무심은 누구에 의하여 발아(發芽)되었는가? ③ 무심은 어느 시대 어떤 선사(禪師)에 의하여 개화(開花)하였는가? ④ 최종적으로, 무심은 누구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았는가?의 문제들을 서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백운화상의 無心'에서는 백운화상이 깨달은 바, 즉 無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였다.

둘째, 제3장 '無念·無心의 배아(胚芽)'에서는, '無念·無心'이라는 용어는 7세기 후기에 육조혜능(六祖慧能)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고, 8세기 초기에 하택신회(荷澤神會)가 無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4장 '無心의 발아(發芽)'에서는, '無心'이라는 용어는 8세기 중기에 남양혜충(南陽慧忠)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제5장 '無心의 개화(開花)'에서는, 첫째로 8세기 후기에 마조도일(馬祖道一)에 의하여 '마음(心)이 바로 부처(佛)이며, 平常心이 도(道)이면서 또한 무심(無心)이다'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둘째로 8세기말·9세기초기에 반산보적에 의하여 '無心은 도(道)와 부처(佛)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방법'으로 정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로 마조도일의 '平常心이 道이다'라는 주제는 남전보원(748-835)과 조주종심(778-897)에게 전수(傳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제6장 '無心의 結實'에서는, 9세기 전기에 황벽희운(黃蘗希運)에 의하여 '無心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됨'으로써, 드디어 無心의 結實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는 2012-2013학년도(2012.3.1 ~ 2014.2.28)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하는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조성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3년 8월 28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www.kci.go.kr

따라서 무심선(無心禪)의 사상(思想)은 임제종(臨濟義玄: ?-866)이 성립되기 그 이전, 즉 육조 혜능부터 혜능의 제5세(世)인 황벽희운의 시대까지의 5대(代)에 걸쳐서 완성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무심선(無心禪)은 혜능의 남종선(南宗禪), 즉 육조선법의 정통을 계승한 조사선(祖師禪)의 본질(本質)임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要語: 「직지(直指)」, 백운경한(白雲景閑), 무심(無心), 무념(無念), 평상심(平常心), 도(道), 무심선(無心禪)

<ABSTRACT>

This research bibliographicall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Musim(無心)' presented in the first volume of *Jikji*(「直指」) by observing that ① the first appearance of 'Munyeom(無念), Musim(無心)' as in embryo, ② who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Musim'? ③ when and who helped flourish this concept? and ④ finally, who matured this concep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hapter 2 'Musim presented by Baegun Hwasang(白雲和尙)', what was 'Musim' that Baegun Hwasang had initially comprehended was discussed.

Second, in Chapter 3 'Munyeom, Musim in Embryo', it was confirmed that the term 'Munyeom, Musim' was first used by Yukjo Hyeneung(六祖慧能) in the late 7th century, and in the early 8th century Hataek Sinhoe(荷澤神會) further specified the concept of 'Munyeom'

Third, in Chapter 4 'Sprouting of Musim', it was documented that the term 'Musim' was first used by Namyang Hyechung(南陽慧忠) in the mid-8th century.

Fourth, in Chapter 5 'Flourishing of Musim', it was found that 1) in the late 8th century Majo Doil(馬祖道一) had established the concept that the mind was Buddha, and the normal mind(平常心) was truth(道) as well as Musim, 2) in the late 8th century and the early 9th century, 'Musim' was established as the method to proceed to truth and Buddha by Bansan Bojeok(盤山普積), and 3) the subject that 'normal mind was truth' had been handed down to Namjeon Bowon(南泉普願: 748-835) and Joju Jongsim(趙州從諗: 778-897).

Fifth, in Chapter 6 'Perfection of Musim', it was discussed that since the specific method to proceed to 'Musim' was presented by Hwangbyeok Heun(黃蘗希運) in the early 9th century, the concept of 'Musim' was finally perfect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Musimseon(無心禪)', that is, the meditation based on normal mind, had been refined and perfected through five generations from Yukjo Hyeneung to the period of Hwangbyeok Heun who was his fifth descendent, before the Imje Sect(臨濟宗) was founded.

In conclusion, in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Musimseon' was the core of meditation which had inherited the orthodox of Namjongseon(南宗禪), that is, Yukjoseonbeop(六祖禪法) developed by Hyeneung(慧能).

Key words: *Jikji*(「直指」), Baegun Gyeonghan(白雲景閑), Musim(無心), Munyeom(無念), Normal Mind(平常心), Truth(道), Musimseon(無心禪)

www.kci.go.kr

1. 서 론

『직지(直指: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를 편찬(編撰: 抄錄)한 백운화상 경한(白雲景閑: 1299-1375)은 중국 임제종(臨濟宗) 호구파(虎丘派)의 법통을 계승한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1]으로부터 자신의 깨달음(無心)[2]을 인가(印可)받았고, 스승과 작별할 때 석옥화상이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직지』 1권'을 그 정표(情表)로 받아서 귀국하였다. 따라서 백운화상은 임제선법(臨濟禪法)을 계승한 선사(禪師)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아이러니(ironey)하게도, 경한이 증보・편찬한 '『직지』 上・下권'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정작 임제종의 종조(宗祖)인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법어(法語)나 게송 및 임제의 그 유명한 '할(喝)'과 관련한 일화 등은 단 한 수(首)도 채택되고 있지 않다.[3] 게다가 『직지』에서는

---

1) ① 석옥청공: 南宋末・元初의 임제종 호구파(虎丘派)의 禪師. 강소성 蘇州 常熟 출신. 20세에 소주 興敎 崇福寺의 永惟에게 출가하여, 23세에 구족계를 받음. 처음에는 高峰原妙에게 참구하였고, 나중에 급암종신(及庵宗信)에게서 得法함. 스승 급암선사는 석옥선사를 일러 '석옥은 法海 가운데서 그물을 뚫고 나온 금린(金鱗; 황금 물고기)이다'고 그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전법(傳法)하였다. 그 후 석옥은 하무산(霞霧山)에 올라 천호암(天湖庵)을 짓고 살았는데, 가화(嘉禾) 복원선사(福源禪寺)의 제2대 주지(住持)직을 강요받아, 이에 수락하여 7년 동안 후학(後學)을 양성하다가, 은퇴하여 천호암으로 다시 돌아왔다. 1341년에 황후가 금란의(金欄衣)를 증정하였다. 고려말에 태고보우와 백운경한이 각각 그의 法을 계승(繼承)하여 옴. 1352년 7월 21일에 미질(微疾)을 보이고, 7월 23일 밤에 입적하였다. 다비하여 영골사리(靈骨舍利)를 거두어 천호암의 언덕에 탑(浮圖)을 세우고 급암종신의 탑(塔)과 배치(配置)하였으니, 급암선사가 '후에 너(석옥)는 나(급암)와 감실(龕室)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뜻을 잊지 않은 것이다. 세수 81세, 법랍 54세였다.
② 임제종 호구파: 호구소륭(虎丘紹隆: 1077-1136)에서 파생되는 임제종의 종파. 호구소륭은 원오극근(圓悟克勤)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傳受받음.

2) '無心'이라는 용어는, 『禪學辭典』 등에 의하면, ① '사량분별이 전혀 없는 마음의 상태(『벽암록』 65.)'라 하였다. ② '眞心이 妄念을 여읜 것', ③ '만약 妄心이 일어나지 않으면 능히 깨달음에 이른다. 이른바 無心이 이것이다(『宗鏡錄』 83.)'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백운화상의 『직지』에는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의 '몽둥이'와 관련한 일화 또한 단 1片도 채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지』 하권 덕산선감條'에는 오히려 다른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무심선의 근본이 '임제할 덕산방(臨濟喝德山棒)'으로 유명하였던 중국 9세기 중기의 분방호쾌(奔放豪快)한 禪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www.kci.go.kr

간화선(看話禪)[4]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법어도 전혀 채택되지 않은 점을 또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5] 이러한 사항은 곧 「직지」의 편찬 의도는 오로지 無心의 선양(宣揚)에만 있었음을 추정(推定)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한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14세기 당시 중국 "임제선에서는 새로운 수행법으로서 간화선법(看話禪法)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백운화상은] 오히려 무심선(無心禪)[6]의 길을 지켰다. 무심선이야말로 육조선법과 임제선법의 정통인 조사선(祖師禪)의 본질을 밝힌 선(禪)이다. 무심선은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견문각지(見聞覺知)를 통해 삶의 본질을 드러낸 선법이다. 무심선이야말로 여러 선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고준(高峻)한 선법(禪法)이다"[7]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심선은 정통 조사선의 본질을 밝힌 선(禪)이면서 여러 선법 중 가장 고준한 선법'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14세기 당시 중국 선불

4) 看話禪: 宋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제창한 '看話를 좌선의 正門으로 하는 禪風'. 원래 이 용어는 대혜의 선을 비판한 굉지파(宏智派)에서 한 말인데, 그 후의 시대에 대혜의 선풍이 임제의 一宗을 풍미하기에 이르러, 임제의 宗風을 의미하는 말로 정착되었음. 현재 한국불교 조계종의 기조 선풍이 바로 간화선이다.
한편, '묵조선(默照禪)'이라는 용어는, 대혜종고가 굉지파의 좌선을 비난한 '묵조정좌(默照靜坐)'의 뜻을 가진 말이지만, 후에는 조동종 사람들이 自派 좌선의 특징을 보이는 말로 사용함.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 조동종의 禪師; 그의 門流를 '굉지파'라고 지칭한다)이 주장한 좌선은 일체의 사량분별을 끊고 묵묵히 좌선함으로써, 心性 그 자체에 계합되어 영묘한 작용을 갖춘다고 함. '묵조선'과 '무심선'은 별개(別個)임.

5) 이로 보아, 최초에 「직지」를 '1권본'으로 간추린 석옥청공 선사와, 「직지」를 '2권본'으로 편찬(編撰)한 백운화상 경한의 저술 의도는, 간화선 및 '할(喝)·방(棒)' 등의 선풍은 지양하는 가운데, 과거칠불 및 석가모니 이래 중국 달마선종 및 육조혜능의 南宗禪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無心禪의 眞髓를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6) 현재 「선학사전」·「불교학대사전」 등에도 '무심선'이라는 용어는 채택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는 근래에 「직지」가 우리말로 몇 종의 번역서가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정작 「직지」의 내용(無心)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야 비로소 진행되는 경향이고, 한국 불교학계에서도 그동안 간화선의 연구에만 치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無心禪'이란 '석옥청공 및 백운경한이 추구한 禪의 眞髓'라는 관점에서 논술하고자 한다.

7) 무비, 「직지 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 18.

www.kci.go.kr

교에서는 왜 간화선이 만연(漫然)하였는가? ② 대혜종고(1089-1163) 이후 14세기 당시까지 임제종에서는 간화선이 그 큰 흐름(主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옥청공은 무엇 때문에 백운화상에게 무심선을 인가(印可)·전수(傳授)하였는가? ③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백운화상보다 먼저 석옥화상으로부터 그 법통을 전수받아 귀국하였다. 그런데 태고화상은 귀국하여 오히려 간화선으로 제자들을 지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8] ④ 백운화상이 귀국한 후 14세기 중기 당시의 고려 선불교에서 무심선을 고수(固守)하였던 이유와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은 참으로 궁금하고 흥미롭다.[9]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 중 ②·④와 관련하여, 백운화상이 강조하는 '무심(선)'은 육조혜능의 남종선(南宗禪)에서, Ⓐ '無念·無心'이라는 용어 및 개념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비로소 언급되었는가?를 '無心의 배아(胚芽)' 단계로 보고, Ⓑ '무념·무심이라는 씨앗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싹트게 되었던가?'를 '무심의 발아(發芽)' 단계로 보며, Ⓒ '무심이라는 개념 및 정체(identity)는 그 어느 시대의 특정인에 의하여 어떻게 강조됨으로써 활짝 꽃피우게 되었는가?'를 '無心의 개화(開花)' 시기라 보고, Ⓓ '無心은 언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전개·강조함으로써 그 열매(結實)를 맺게 되었는가?'를 '無心의 결실(結實)' 단계로 구분한 후, 그 각각의 단계 및 과정의 핵심들을 『직지』의 내용 속에서 서지적(書誌的)으로 정리하여 봄으로써 무심선의 전모(全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이 편찬한 '『직지』 상권 중국선사' 중에서 무심선의 핵심요어(要語: key-word)라 할 수 있는 '무념(無念)·무심(無心)·평상심(平常心)·도(道)'[10] 등이 포함된 내용의 게송·법어 등을 검색·추출하고, 이들 용어

8)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태고보우를 한국 조계종의 종조로 간주·인정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한국불교의 선종(禪宗: 조계종)에서는 보조국사 지눌보다 태고보우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다는 의미이다.

9)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들은 한국불교학·서지학 및 한국학 등의 관련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판단됨.

10) 위와 같은 핵심요어들은 필자의 선행연구(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의 결과에서 추출한 것임.

www.kci.go.kr

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육조혜능(六祖慧能)조(條)'부터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서지적으로 이들 내용의 핵심 사항들을 차례대로 분석해 봄으로써, 백운화상의 「직지」 상권에 채택된 '무심'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백운화상의 無心

이 논문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11]에서, 첫째로 '無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① '마음씀이 없음', ② '마음이라 할 것도 없음', ③ '마음은(이) 없음' 등으로 해당 게송 등의 문맥에 따라 옮기는 것이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백운화상의 無心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平常無事底心: 平常心)'이며, '내려놓음(放下着)'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성품(眞如之性)'을 의미함을 파악하였다. 셋째로 백운화상의 無心은 달마(達磨)조사의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꿰뚫어 보아 깨달음을 얻음(直指人心 見性成佛)[12]' 및 석가모니의 '내려놓음(放下着)' 게송에 계합(契合)하고 있으며, 無心이란 '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씀이 없는 것'임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평상시의 일없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放下着) 다만 '마음씀이 없음(無心)'이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라 하여, 無心의 경험적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백운화상은 자신의 '깨달음(無心)'[13]에 대하여, 그의 어록(語錄)인 「백운화상어록」 중에서, 중국유학 시절인 "임진년(1352) 정월 초순, 천호암(天湖庵)에 머물

11) 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

12) '見性'은 '見佛性'의 준말이다. '불성을 본다(見)'에서 '見'은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직접 만난다(親見)'는 뜻으로, '망상 등이 사라지고 자기의 본성과 직접 만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13) 깨달음(悟): 마조도일(馬祖道一)은 "깨달음은 곧 스스로의 본성(本性)을 깨달은 것이다(悟卽悟自家本性)"라고 하였다. 따라서 깨달음(悟)이란 인간의 본성(本性)이 분별·망상(分別妄想)으로 덮여 있다가 문득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불성(佛性)'이라고도 한다.

www.kci.go.kr

고 계시는 스승님[석옥청공] 곁에 다시 가서, 정성어린 마음으로 아침・저녁으로 여쭈어 의심을 풀었다. 그리하여 1월 12일, '無心・無念의 참된 근본(眞宗)'에 은밀히 계합(契合)하였다"[14]라 함으로써 '無心・無念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백운화상은 중국에서 귀국한 후에 '두 번째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백운화상의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더욱 깊은 깨침이라 할 수 있다. 즉,

> 계사(癸巳: 1353)년 1월 17일 낮에, 고요히 좌선(端坐)하고 있던 중, 영가대사(永嘉大師)의 「證道歌」 속에 "망상(妄想)을 없애지도 말고 참됨(眞)을 구하지도 말라. / 無明의 실제 성품이 곧 佛性이요 / 환상으로 나타난 비어있는 몸(幻化空身)이 바로 법신(法身)이다"라고 한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그 말을 깊이 음미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바로 無心이 되었다.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자 그윽하고 깊숙한(冥然)한 경지에 이르렀다.
> 그러다가 갑자기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자기일 뿐, 몸과 마음은 하나(身心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산하대지(山河大地), 밝고 어두움(明暗), 현상과 비어있음(色空), 범속함과 거룩함(凡聖)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자 저절로 평등을 다하게 되고, 그 평등이 뚜렷한 밝음(圓明)과 혼연일체를 이루니, 無心의 힘이 작용하면서 전체가 現成하여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꿰뚫었으며, 과거와 현재(古今)를 초월하였다. 본래부터 움직이는 바가 없던 것이지, 지금에 와서 비로소 적멸한 것이 아니었다. 평등하고 평등해서 애초부터 근본은 다르지 않았다.
> 그리고 나서야 이 일이 言句에 있지 않고, 근(根)[15]과 진(塵)[16]을 멀리 벗어났

14) ① 釋璨(錄), "師於癸巳正月十七日 記霞霧山行 示同庵二三兄弟," 「白雲和尙語錄」 卷下, 「韓國佛敎全書」 第六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57. "去年壬辰正月上旬 再造天湖師傳身邊 勤意旦夕諮決心疑 上元前三十有三日[1352년 1월 12일] 密契無心無念眞宗." ② 釋璨(錄), "至正甲午(1354)六月初四日 禪人法眼自江南湖州霞霧山天湖庵石屋和尙辭世陪來 十四日 師於海州安國寺設齋 小說," 「白雲和尙語錄」 卷下, 「韓國佛敎全書」 第六冊, 657-659. "… 임진년(1352) 정월 이른 봄 / 스승 곁에 나아가 단련을 받고 / 1월 12일에, 무심(無心)의 위없는 진리에 은밀히 계합하였네[깨쳤네](我於壬辰正月春 躬造室中受熏練 上元前三十[有]三日 密契無心無上宗)."

15) 六根: 眼・耳・鼻・舌・身・意를 의미함.

16) 六塵: 인간의 心性을 더럽히는 六識의 對象界. 곧 육근이 외부의 경계인 六境(色・聲・香・味・觸・法)을 만나서 일으키는 여섯 가지 욕망을 의미함. 육적(六賊). 외진(外塵).

www.kci.go.kr

> 으며,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 그 바탕(體)이 참되고 영원함(眞常)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히 고요(湛然凝寂)하여 그 묘한 작용이 갠지즈강의 모래알(恒河沙)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17]

라 하여, 그의 깊은 깨달음(無心)에 경지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근거하면, 백운화상의 無心은 혜능의 법을 계승한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의 「증도가(證道歌)」 중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妄想을 없애지도 말고 참됨(眞)을 구하지도 말라. / 無明의 실제 성품이 곧 佛性이요 / 환상으로 나타난 비어있는 몸(幻化空身)이 바로 法身이다)."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심선이야말로 혜능의 남종선, 즉 육조선법(六祖禪法)의 정통을 계승한 조사선(祖師禪)의 본질임을 파악할 수 있다.[18]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백운경한의 無心과 관련한 선(禪)을 '무심선(無心禪)'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7) 釋璨(錄), "師於癸巳正月十七日 記霞霧山行 示同菴二三兄弟 在佛覺禪寺述," 「白雲和尙語錄」 卷下, 「韓國佛敎全書」 第6册, 657. "至於癸巳正月十七日午 端坐自然 思念永嘉大師證道歌中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念到這裏 深味其言 忽正無心 不生一念 前後際斷 了無依倚 到冥然地. / 驀爾明見三千世界 都盧是箇一箇自己身心一如 身外無餘 山河大地 明暗色空凡聖. 身心泯然 自盡平等 平等圓明混成 無心力用全體現成 透頂透底 超今邁古. 本無所動 今無始寂 平等平等 無始本異. / 深信此事不在言句, 逈脫塵根 不在內外 不在中間 體露眞常 湛然凝寂 妙用恒沙."

18) 백운화상이 깨친 무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홀연히 無心이 되면서, 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자 그윽하고 깊숙한(冥然)한 경지에 이르자, 갑자기 삼천대천세계가 온통 하나의 자기일 뿐,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로서 몸 밖에 따로 '산하대지(山河大地)·밝고 어두움(明暗)·현상과 비어있음(色空)·범속함과 거룩함(凡聖)'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백운화상은 "無心의 깨달음은 언구(言句)에 있지 않고, 근(根: 마음)과 진(塵: 속세의 일)을 멀리 벗어났으며, 안팎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 그 바탕(體)이 참되고 영원함(眞常)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히 고요(凝寂)해서 그 묘한 작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www.kci.go.kr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지』 상권에 수록된 '중국선사'條에서 육조혜능을 비롯한 7-9세기의 중국선사의 가운데 '無念・無心・平常心・道' 등의 핵심 요어(要語)가 포함된 법어・게송 등을 검색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직지」 上卷 중 中國禪師조(條)에 표방되는 無念·無心[19]

	區分[20]	人 物	주제명(主題名標目)[21]	要語(키워드)	비고
1	中禪 7	六祖慧能(638-713)	생각이 없으면(無念)	無念	
2	中禪 12	荷澤神會(670-762)	無念이 最上乘 法이다	無念	
3	〃	하택신회	진여(眞如)는 無念이라	無念	
4	中禪 11	南陽慧忠(?-775)	부처 또한 無心이다	無心可用, 無心	마음 쓸 것 없는 것
5	中禪 14	馬祖道一(709-788)	無心이 道이다	無心, 道	
6	〃	마조도일	平常心이 道이다	平常心, 道	
7	中禪 18	盤山普積 (8世紀末-9世紀初)	마음이 없으니(無心) 삼계도 없다	無心	마조도일의 제자
8	中禪 17 中禪 29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5) 趙州從諗(778-897)	平常心이 道이다	平常心, 道	庭前栢樹子, 放下着
9	中禪 16	黃檗希運(?-850)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無心	
10	〃	황벽희운	無心이 곧 法이다	無心, 法	
11	〃	황벽희운	無心이 道를 행(行)하는 것이니	無心, 道	
12	〃	황벽희운	일체(一切)의 마음이 없다면(無心)	無心	
13	〃	황벽희운	당장에 無心하라	無心	

<표 1>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부터 차례로 선사(禪師)별로 구분하여 '無念・無心' 등에 대하여 분석・논술해 보고자 한다.

19) 이 표에 제시된 '구분'・'주제명(主題名標目)'은 필자가 논술을 위한 편의상으로 부여한 것이고, 要語(키워드)는 주제명에서 추출한 것임.
20) '구분' 사항은 『직지』의 中國禪師條(조)에 배열된 선사의 차례를 그 순서대로 부여한 것임.
21) '주제명'은 『직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원문사항에서 그 내용을 참작하여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임.

www.kci.go.kr

3. 無念·無心의 배아(胚芽)

3.1 육조혜능의 無念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혜능(六祖慧能: 638-713)은 달마(達磨) 이래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祖)로, 남종선을 크게 일으킴으로써 후세에는 중국의 선불교(禪佛敎)를 대표하게 되었다.

일찍이 혜능은 저자 거리(市中)에서 「金剛經」을 독경하는 것을 듣고,[22] 출가할 뜻을 품은 후 제5조인 홍인(弘忍)대사를 찾아가서, 홍인이 주석하는 사찰에서 대방(碓房: 방앗간지기)으로 8개월 있다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23]이라는 유명한 게송을 제시함으로써 홍인으로부터 의발(衣鉢)을 전수받았고, 혜능은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혜능은 7세기 후기와 8세기 초기에 조계산(曹溪山) 등지에서 돈오주의(頓悟主義)를 펼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선풍(禪風: 南宗禪)을 드날렸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조계종(曹溪宗)의 원조(元祖) 또한 혜능이라고 볼 수 있다.

혜능의 문하에서 남종선을 꽃피운 '청원행사(?-740)·남악회양(677-744)·하택신회(670-762)·영가현각(675-713)·남양혜충(?-755)'과 같은 5대 제자의 문하에서 중국·한국·일본에서 번성한 임제종(臨濟宗)을 비롯한 5家7宗[24]의

---

22) 5祖 홍인(弘忍)에 이르러서는 「금강경」에 의지하여 모든 제자들을 지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혜능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이라는 구절을 듣고 출가할 뜻을 품었다는 일화(逸話)는 당시의 사회적인 삶의 가치였던 충(忠)과 효(孝)에 얽매여 있던 고정관념에서 "어떤 것에도 이 마음을 머물지 마라. 마음은 본래로 무한자유·무한해탈이다(應無所住而生其心)"라는 이 한 마디에 혜능스님도 마음이 활짝 열렸다(무비, 「직지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 208)라 함으로써, 五祖 弘忍의 시대에는 「금강경」을 매우 重視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23) 육조혜능이 오조홍인 門下에서 대방(碓房) 시절에 지은 게송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 중의 한 句節.

24) 오가칠종: 5家는 唐末宋初의 중국 선종의 5대 門派. 즉 潙仰宗·臨濟宗·曹洞宗·雲門宗·法眼宗을 말한다. 여기에 송 시대에 임제종에서 갈라진 황룡파(黃龍派: 黃龍宗)와 양기파(楊岐派: 楊岐宗)를 합하여 7宗이라 함. 이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전한 것은 임제종(황룡파,

www.kci.go.kr

선(禪)이 꽃피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선종의 계보(系譜)들은 모두 혜능의 법계(法系)에서 발전한 것이다.

백운화상이 초록(抄錄: 編撰)한 「직지」에서는, 위와 같은 혜능이 생전에 설법한 게송과 법문 중에서 '10수(首)'를 가려 뽑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無念'[25]과 직접 관련한 게송으로는, '「직지」 상권 六祖[慧]能大師조(條) 第10首'인 "생각이 없으면(無念)"에서

> [육조혜능은] 또 게송으로 말하였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삿되게 되고 / 생각이 없으면(無念) 그 생각이 바르게 된다(又云 有念念成邪 無念念卽正)"[26]

을 주목할 수 있다. 이 게송은 혜능이 법달(法達)[27]에게 내린 게송(偈頌)의 일부이다.[28] 여기서의 '無念'은,[29] '「법화경」을 읽을 때 부처의 지견(佛知見)을 열어

양기파)임.

25) 無念: '對象의 相을 초월한 眞如의 本性에 관하여 마음까지도 여의는 것'을 의미한다.

26)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直指」로 약칭함)」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18張 2面.

27) 法達(生沒未詳; 혜능의 초기 제자): '「傳燈錄」 제5권'에 洪州法達은 혜능의 5대 제자(청원행사 등)보다 먼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법화경」을 염불하던 법달이 혜능의 깨우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게송을 남기고 있다. 그리하여 법달은 혜능의 제자로 입문하여 叅學하고, 후에 印可를 받아 소주 남화사에 머물면서 종지를 선양한 인물이다. 이러한 사항들로 보아 법달은 '혜능이 법을 펼치기 시작한 초기 시대에 그 제자로 입문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게송은 늦어도 '7세기 후기'의 게송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법달은 일곱 살에 출가하여 「法華經」을 3,000번이나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혜능을 親見하며 절할 때에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머리를 땅에 대고 인사하는 頂禮, 즉 五體投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의 집착(我慢)을 버리지 못한 상태]고 한다. 그리하여 혜능은 법달에게 '아만(我慢: 有我), 즉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죄가 되고, 마음을 밝혀야 비로소 보살이 됨'을 일깨워 준다.

28) 즉 '「六祖檀經」 叅請機緣 第六'에서,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나를] 굴리고(읽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네(읽네) / [법화]경을 외운지 오래 되었어도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 뜻(義)과는 원수가 된다. /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곧 바르게 되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삿되게 된다. / 생각이 있고 없음을 함께 헤아리지 않으면, 흰 소가 끄는 수레(白牛車)를 항상 타고 노닐리라(心迷法華轉 心悟轉法華 / 誦經久不明 與義作讎家 / 無念念卽正 有念念成邪 / 有無俱不計 長御白牛車)."라는 게송이다.

www.kci.go.kr

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行)하면서 그 마음을 밝힐 때 '마음을 밝힌다・成佛하겠다'는 등의 한 생각(一念)마저도 없어야 비로소 '無念'이 바르게 된다(念卽正)'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혜능이 제시하는 '無念'은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 그 어떠한 망상(妄想)도 없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30][31]

요컨대, 「직지」 상권에서 '無念'이라는 용어는 남종선에서 '육조혜능'條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無念・無心'이라는 용어는 육조혜능에 의하여 직접 그 씨앗(種子: 胚芽)이 뿌려짐으로써 남종선에서 비로소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혜능이 법을 펴기(弘法)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7세기 후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념'의 개념은 '無我의 경지에 이르러 그 어떠한 망상도 없는 상태'를 의미함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혜능의 시대에는 '無心'이라는 용어는 아직 등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2 하택신회의 無念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62)[32]는 '혜능의 5大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732년(開元 20) 1월에 낙양(洛陽)의 北東에 위치한 활대(活臺)의 대운사(大運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 宗論에 관한 논쟁)를 열고, 당시 장안(長安)・낙양(洛陽)에서 교세(敎勢)를 떨치던 신수(神秀: 606?-706)의 제자들과 토론한 결과, 신수의 북종(北宗)을 이단(異端)으로 물리치고, 혜능의 남종(南宗)을 정통(正統)으로 선

29) 위의 게송은 석가모니의 敎說, 즉 「법화경」 등 경전에 입각하여 수행을 할 때에도 '無念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을 밝힐 수 있다'는 부분을 백운화상이 발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本來無一物'을 깨달은 혜능의 관점에서 佛敎(석가모니)의 敎說, 즉 經典을 바라보는 중요한 견해임을 파악할 수 있다.

30) 이러한 무념은 이후 남양혜충의 법어에 등장하는 '無心'의 개념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31) 이는 곧 「금강경」의 '應無所住而生其心(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라는 핵심 요체(要諦)와 닿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하택종의 宗祖. 그의 생몰년대는 '684-758'년이라는 설도 있다. 그는 701년에 신수(神秀)의 권고에 따라 혜능(慧能)의 휘하에서 참학함. 732년 무렵 당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에서 교세(敎勢)를 떨치던 신수(神秀) 등의 북종선(北宗禪)을 비판하고, 스스로 혜능의 직계(直系) 제자이며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정통 계보(正系)임을 주장함.

www.kci.go.kr

양(宣揚)한 장본인이다.[33] 그리하여 달마(達磨) 이래 중국의 선종(禪宗)에서 혜능이 달마(達磨)의 제6대(第六祖) 적손(嫡孫)임을 결정(決定)함으로써, 남종선(南宗禪)이 중국의 선종을 대표하게 되었다.

혜능의 법맥(法脈)에서 혜능을 제1세(世)로 보면, 신회는 혜능의 제2세이다. 『직지』 상권에 신회의 법어는 3수(首)가 수록되고 있다. 그 중 2수가 무념(無念)에 관한 것이다.

첫째, '『직지』 上卷 荷澤神會禪師조(條)의 제1수(首)'인 "無念이 최상승(最上乘)의 법(法)이니"에서

> 하택신회 선사가 대중에게 설법하였다. "하나의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自心)이다. 이것은 지혜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달리 별다른 수행도 없다.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참다운 삼매(三昧: 三摩提)에 든 것이다. 법(法)에는 가고 옴이 없으며 앞뒤의 경계도 끊어졌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생각이 없는 것(無念)이 가장 높은(最上乘) 법이다. 여러 공부하는 대중에게 알리노니, 밖으로 내달리며 구하지 말라!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면 응당 지음(作)이 없어야 한다."[34]

라 하여, 無念이야말로 최상승의 법(法: 眞理)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회는 '자신의 마음(自心)이란 하나의 물건(一物)도 생각하지 않는 것(不思)'이라 하여, 즉 '사람들의 진정한 참 마음은 아무런 망상(妄想)도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경지'[35]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최상승 선(禪)을 추구하려면 마땅히 지음(作)이 없어야 함'을 설교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신회가 사용한 '무념(無念)'이라는 용어는 '아무런

---

33) 이러한 신회의 行蹟 및 신회가 達磨의 傳記를 결정한 기록 등은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柳田聖山 著, 서경수・이원하 譯, 『禪思想』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4), 61-64.' 참고 요.

34)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荷澤神會禪師 示衆云 不思一物卽是自心 非智所知 更無別行 悟入此者眞三摩提 法無去來 而前後際斷 **故知無念爲最上乘** 告諸學衆 無外馳求 若最上乘禪 應當無作."

35) 무비, 『직지 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 275. 바로 이러한 경지는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경지이며, 또한 어떠한 수행도 동원하여 얻어지는 경지도아니라고 하였다.

www.kci.go.kr

망상도 없어서 아무 것(一物)도 생각하지 않는(不思) 경지'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인 현재에서 '무심(無心)이란 마음속에 아무런 망상도 없어서, 그야말로 마음에서 아무것도 걸리지(생각하지) 않는 경지'라는 개념과 절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회가 사용한 '無念'이라는 용어는 바로 '無心'의 개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용어만 '無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회의 당대(當代: 670-762)에서도 그때까지 '無心'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직지」 상권 荷澤神會禪師조(條)의 제2수'에서,

> 하택선사가 또 말하였다. "無念으로 으뜸(宗)을 삼고 조작이 없음(無作)을 근본(本)으로 삼아야 한다. 무릇 진여(眞如)[36]는 無念이라. 생각으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實相)은 생겨남이 없음이니, 어찌 몸(色)과 마음으로 능히 볼 수 있겠는가? 無念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진여를 생각하고, 생겨남이 없음(無生)으로 생겨남은 곧 실상을 냄이다. 머무름이 없이 머무는 것은 항상 머무는 열반(涅槃)이요, 행함이 없이 행함은 곧 저 언덕(彼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생각 생각마다 구함이 없으니, 구하여도 본래 無念이다."[37]

라 하여, '無念'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설법은 혜능의 출가 동기가 된 「금강경」의 '應無所住而生其心(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하여 얼핏 보면, 신회의 '無念'에 관한 설법은 혜능이 제시한 '無念'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신회는 "진여(眞如)는 무념(無念)이다"라는 보다 크고 명확한 명제(命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眞如'는 '사물의 본체(本體: 본바탕)로서 진실로 영원불변한 것'이라는 의미로, 대승불교에서 '진여는 만유(萬有)[38]의 본바탕(本體)'임을 일컫는다. 따라

---

36)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우주 만유(萬有)의 본바탕(本體)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진리'를 말함.

3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荷澤神會禪師] 又云 無念爲宗 無作爲本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 實相無生 豈色心而能見 無念念者 卽念眞如 無生生者 卽生實相 無住而住 常住涅槃 無行而行 卽超彼岸 念念無求 求本無念."

38) 우주에 존재하는 萬物.

www.kci.go.kr

서 신회가 '진여는 무념이다'라고 한 것은 '우주 만물의 본바탕은 바로 무념(無念)이다'라고 제시한 것이다. 또한 진여는 '諸佛의 自性'이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 즉 깨달음(覺・佛)은 곧 무념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회는 '無念(마음을 일으키지 않음: 心不起), 즉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39]를 으뜸(宗)으로 삼고, 무작(無作)[40]으로 근본을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직지」 상권 하택신회條'에서는, 8세기 중기의 신회는 '진여(眞如는 곧 無念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혜능의 당대(當代)보다 無念의 개념을 보다 한 층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혜능의 무념에서 진일보(進一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無心의 발아(發芽)

8세기 중기에 당(唐)의 국사(國師)였던 남양혜충(南陽慧忠: ?-775)은 '육조혜능 문하의 5대 제자(宗匠)' 중의 한 사람으로, 혜능의 제2세이다. 혜충은 숙종(肅宗: 756-762)과 대종(代宗: 762-779)인 두 황제로부터 두터운 귀의(歸依)를 받았다.[41] 그는 담백한 본성 그대로 천진자연한 인물로, 신회와 더불어 북방에서 혜능의 선양운동에 앞장섰다. 그의 선(禪)은 '신심일여・즉심즉불(身心一如 卽心卽佛)'로써 무정설법(無情說法)[42]을 처음으로 일컬었다. 남방의 선승들이 경전을

39) 신회는 「菩提達磨南宗定是非論」에서 좌선(坐禪)에 관하여 "'좌(坐)'라고 함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선(禪)'이라 함은 본래의 자성(自性)을 보는 것이다"라 하였다(柳田聖山 著, 서경수・이원하 譯, 「禪思想」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4), 65.).

40) 인위적으로 짓지(造作) 않는 것.

41) 761년에 숙종이 그의 명성을 듣고 首都로 모시게 하고, 스승의 예를 올렸다고 함. 처음에는 千福寺에 머물렀다가, 대종이 초청하여 光宅寺에 머묾.

42) 無情說法: 설법은 情識을 가지고 있는 有情(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山川草木과 같은 정식(情識)이 없는 無情의 존재(무생물)도 역시 마음을 가라앉혀서 지혜의 귀로 들으면 소리없는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www.kci.go.kr

중시(重視)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經律論을 펼치며 교학(敎學)도 중시하였다.

'『직지』上卷 [慧]忠國師조(條)'에는 혜충의 법어가 총 '9首'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無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법어는 그 제8수(首), "부처(佛) 또한 無心이다"라는 법어에서,

> [혜]충국사에게 영각이라는 승려가 질문하였다. "발심(發心)하여 출가(出家)하는 것은 본래 부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성불(成佛)할 수 있겠습니까?" / "마음 쓸 것 없는 것(無心可用)이 곧 성불(成佛)이다" / "마음 쓸 것 없으면 누가 성불합니까?" / "마음 쓸 것 없으면(無心 = 無心可用) 저절로 이루어지니(成: 成佛), **부처(佛)도 또한 無心이다**" / "부처님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분이라 능히 중생을 제도하시니, 만약 無心하다면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 "**無心이야말로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면, 곧 이것은 유심(有心: 분별하는 마음이 있음)이니 완연한 생멸(生滅)이다."[43]

라 하여, 『직지』 상권 중국조사 사항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혜충에 의하여 처음으로 싹터서(發芽) 등장하였다. 따라서 혜충의 시대, 즉 8세기 중기에 이르러서야 남종선에서 비로소 '無心'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혜충은 위의 인용문에서 '부처 또한 무심이다(佛亦無心)'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신회의 '진여(眞如)는 무념(無念)이다'라는 선언과 대련(對聯)이 된다.[44] 즉, 혜충은 '진여를 부처라 하였고(眞如 ⇒ 佛), 무념을 무심(無念 ⇒ 無心)'이라고 재조명함으로써 결국 "진여는 부처(佛)이면서 동시에 無心이다"라는 개념을 설파(說破)하고 있다. 따라서 혜충은 '부처는 곧 無心이다'라고 선언한 최초의 선사이다.[45]

---

43)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1張 2面. "忠國師 因靈覺僧 問發心出家 本爲求佛 未審如何用心卽得 師云 無心可用 卽得成佛 曰無心可用 阿誰成佛 師云 無心自成 **佛亦無心** 曰佛有大不可思議 爲能度衆生 若也無心 阿誰度衆生 師曰 **無心**是眞度衆生 若見有生可度者 卽是有心 宛然生滅."

44) 신회가 '眞如'라 한 것을 혜충은 '부처(佛)'라고 표현하였고, 신회가 '無念'이라고 한 것을 혜충은 '無心'이라고 지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위의 인용문에서 남양혜충이 말하는 '無心可用(무심가용)'은 곧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直譯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마음'이란 '마음이 사용되어지는 생각 또는 일'을 의미하

www.kci.go.kr

위 법어에 제시된 '無心'은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음'[46]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일이 없는 마음'은 '텅 빈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이 바로 '無心'이며 곧 '成佛'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無心은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마음, 즉 有心'과 대칭되는 개념을 의미일 것이다. 그리하여 혜충의 無心은 '분별(分別)하는 마음이 없음'[47]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혜충은 "부처와 중생을 一時에 내려놓으면"이라는 게송에서

> 선(善)과 악(惡)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佛性)을 보게 된다. / 또한 부처(佛)와 중생(衆生)을 일시(一時)에 내려놓으면(放下) 그 자리가 곧 해탈(解脫)이다.[48]

라 하였다. 이 게송은 석가모니의 '방하착(放下着)' 구절(句節)을 연상(聯想)하게

며, 그러한 수많은 생각이나 복잡한 감정 등이 뒤얽혀 있는 모든 상념(想念)과 일들은 다만 세속(世俗)의 하찮고 번거롭기만 한 '번뇌(煩惱)·망상(妄想)'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번뇌·망상 등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이란 결국 '[번뇌·망상 등에] 마음 쓸 것이 없음'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남양혜충은 '마음 쓸 것이 없으면(無心 = 無心可用) 저절로 성불(成佛)이니, 부처(佛)도 또한 無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6) 즉,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다면, 부처니 중생이니, 성인이니 보통사람이니,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처란 그와 같은 문제가 다 사라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무비, 『직지 강설 上』 (서울: 불광출판사, 2011), 264)."

47) 여기에서 '분별(分別)하는 마음이 없음'은 '마음에서 생멸(生滅)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음, 즉 공(空: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긴 가상(假相)이며, 영구불변(永久不變)의 실체(實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의 개념으로써, 혜충은 '부처 또한 空'이라는 경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남양혜충의 無心은, 우주의 근본 실상(實相)을 '체(體)'라고 할 때, '용(用)'은 그 體에서 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세계 또는 물질세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래실상의 體는 모양이 없어서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자리 곧 '작용할 그 어떤 마음도 없는 무심'을 일컬어 이른바 '無心可用'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곧 '空'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세기 중기 시대를 풍미(風靡)한 혜충의 無心은 육조혜능(638-713)의 '本來無一物', 즉 空의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進化)된 관점에서의 '無心'이라고 볼 수 있다.

48)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1張 2面. "忠國師 因僧問 作麽生相應去 師云 善惡不思 自見佛性 又佛與衆生 一時放下 當處解脫."

www.kci.go.kr

하는 대목이다. '진정한 해탈은 '선(善)이니 악(惡)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고 분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참다운 해탈이다. 왜냐하면, 본래 선과 악의 차별이나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이들이 임시방편으로 가설(假設)하여 가르친 것에 집착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착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49] 혜충의 無心은 결국 석가모니가 제시한 '방하착(放下着)'에 귀결(歸結)된다.

요컨대, '『직지』 상권의 남양혜충條'에서는, 8세기 중기에 혜능의 제자인 혜충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無心'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싹터서(發芽)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50] 따라서 '무심'은 8세기 중기에 혜충에 의하여 발아(發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남양혜충의 無心은, 석가모니가 제시한, '방하착(放下[着]: 마음을 내려놓음)의 無心'에도 귀결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5. 無心의 개화(開花)

본 장에서는 『직지』 상권 중에서, 8세기 후기를 풍미(風靡)하였던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및 마조의 제자로서 8세기 말기 및 9세기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산보적(盤山普積: 생몰년 미상)의 경우에서 '無心'에 관한 법어와 게송들이 과연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가? 그리고 황벽희운과 동시대(同時代)에 수행하였던 '남전보원의 도(道)'에서는 깨달음(悟: 道; 佛性)의 實相이 어떻게 변화·발전되고 있는가?의 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無心의 開花' 상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49) 무비, 『직지 강설 上』, 273.

50) 백운화상의 '無念·無心의 眞宗'을 논할 때, '無念·無心'이라는 식물에서 '無念'을 씨앗(種子)이라고 한다면, 이 씨앗에서 '無心'이라는 새싹이 발아(發芽)하였다고 비유하여 볼 수 있다.

www.kci.go.kr

5.1 마조도일의 無心

남종선(南宗禪)에서 8세기 후기를 풍미하였던 마조도일(馬祖道一)은 혜능의 법을 계승한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의 제자이다. 즉, 혜능의 第3世이다.

개원(開元: 713-742)년간에 도일은, 혜능의 법을 계승한 회양(懷讓)이 남악(南嶽)에서 설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그리하여 도일은 '남악마전(南嶽磨磚)'[51]의 기연(奇緣)으로 심인(心印)을 얻어서 남악회양의 법을 이어받았다(嗣法).[52] 그 후 마조선사는 대력(大歷: 766-779)년간에 개원사(開元寺)에 주석하면서부터 종풍(宗風)을 펼치자 천하의 선승(禪僧)들이 운집하였고, 그 선풍(禪風)을 드날리면서 '백장회해・서당지장・남전보원・염관제안・대매법상・대주혜해' 등 무려 139명의 걸출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천하를 풍미하면서 '중국 선종(禪宗)의 황금기'를 열었다.[53] 또한 마조와 그의 문인들에게는 다수의 어록(語錄)이 있어서, 후세에 방대한 선종어록(禪宗語錄)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54]

---

51) 南嶽磨磚: <남악회양선사는 마조가 좌선에만 열중하고 있자, 어느 날 벽돌(磚)을 들고 마조의 암자 앞으로 가서 그것을 갈았다. 마조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 (남악)선사가 답하였다.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만 한다고 어찌 성불(成佛)을 할 수 있겠는가!"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에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때려야 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겠느냐?"> 즉 남악회양은 '부처의 좌선을 흉내만 낸다고 깨달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김으로써, 좌선의 수행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마조를 이끌었다.

52) 마조도일은 중국 대륙의 강서(江西)를 중심으로 교화를 펴 나갔기 때문에 호남(湖南)의 석두희천과 더불어 선계의 쌍벽으로 일컬어졌다. 마조의 禪風은 '平常心是道 卽心卽佛'을 표방하며, 경전이나 觀心에 의거하지 않는 大機大用의 禪을 주창하였다. 문하에 백장회해를 비롯하여 서당지장・남전보원・염관제일・대매법상・귀종지상・분주무업 등 139명의 걸출한 제자를 배출하였다. 마조의 문하에 1,000여 명이 넘는 큰 會上을 이끌면서도 각 제자들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이끈 큰 스승으로 유명하다.

53) '중국 禪宗의 사상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敎團의 형성 등은 남악회양의 禪法을 계승한 마조도일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무비, 「직지 강설 上」, 283)'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4) 한편, 마조도일은 '육조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 백장회해 ⇒ 황벽희운 ⇒ 임제의현'

www.kci.go.kr

「직지」 상권에서 도일의 법문은 모두 '5수(首)'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2수'가 '無心'과 직접 관련이 있다.

첫째, '「직지」 上卷 馬祖조(條) 제1수(首)'인 "무심(無心)이 도(道)이다"에서,

> 마조선사에게 어떤 승려가 질문하였다. "무엇이 부처(佛)입니까?" / "마음이 부처이다" / 또 질문하였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 "무심(無心)이 도(道)이다" / 또 질문하였다. "부처(佛)와 도(道)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 "도(道)는 손을 펴는(展手)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쥐는(握拳) 것과 같다."[55]

라 하였다. 마조도일은 '마음(心)이 곧 부처(佛)이며, 무심(無心)이 곧 도(道)이다'라고 선언하였고, 또한 '도(道)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佛)와 주먹을 쥔 것과 같다'라고 하여, '부처(佛) = 도(道)'라고 규정함으로써, 곧

> [{(마음(心) = 부처(佛) ≒ 握拳} ≒ 手] = [手 ≒ {展手 ≒ 무심(無心) = 도(道)}]

라는 대칭되는 등식(等式)을 성립시켰다. 즉 위의 등식에서 좌우(左右)의 두 각괄호([ ])는 완전하게 대칭되는 구조를 이룸으로써, 마조는 '{마음(心) = 부처(佛)} = {무심(無心) = 도(道)}', 즉 '마음(心)이 곧 부처(佛)이고 동시에 도(道)이면서 또한 무심(無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56] 즉 마조야말로 '無心'이라는 독립된 용어를 선(禪)에서 구체적으로 정립(定立)시킴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주장하는 무심선(無心禪)의 관점에서 보면 無心의 본격적인 시작, 즉 무심의 개화(開花)는 바로 마조도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불교에서는 중국 고유의 사상이었던 도교(道敎)의 영향으로

으로 내려오는 법통(法統)에서 임제종(臨濟宗) 성립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도 평가된다.

55)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2張 1面. "馬祖 因僧問 如何是佛 答曰卽心是佛 又問 如何是道 答曰 無心是道 又問 佛與道 相去多少 答曰道是與展手 佛似握拳."

56) 여기에서 우리는, 「직지」에서 '無心'이라는 독립된 용어는 위 '마조도일條(조)'에서 비로소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음[開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인하여, 부처(佛) 및 불성(佛性) 그 자체를 '道'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 마조도일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육조혜능은 일찍이 '道'에 대하여, "도(道)는 마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다(道由心悟)"[57] 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하여 중국불교에서 '道'라 함은 곧 '깨달음(覺)으로 가는 길이고, 열반의 과(果)를 얻기 위해 마땅히 의지할 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道'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의 법칙을 의미한다.[58]

한편, 위와 같은 '도(道)'에 관하여 도일이 직접 언급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마조선사는 '「직지」 上卷 馬祖조(條) 제1수(首)'인 "도(道)는 닦는 것이 아니다"에서

> 마조선사가 말하였다. "도(道)는 닦는 데에 있지 않다. 만약 닦아서(修) 이루는(成) 것이라면, 닦아서 이루어지면 뒤에 다시 파괴(壞)된다. 곧 성문(聲聞)의 법과 같다. 만약 닦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곧 범부(凡夫)와 같다." / [어떤 승려가] 질문하였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도(道)를 통달(得達: 通達)할 수 있습니까?" / 마조선사가 말하였다. "자기 성품(性)에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다만 선(善)과 악(惡)에 막히지 아니하면 도(道)를 닦는다고 말할 수 있다."[59]

라 하였다. 즉 도일은 '道는 닦을(修) 것이 아니라, 다만 선(善)이나 악(惡)에 막히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의 성품에서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지」 上卷 馬祖조(條) 제4수(首)'인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에서,

> 마조선사가 말하였다. "도(道)는 닦는 것이 아니다(道不用修). 다만 더러움에

5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17張 2面.

58) 따라서 백운화상의 '無心'을 고구(考究)하는 본 연구에서는 '道'라는 용어(key word)도 '無心'이나 '無念'의 개념과 동등한 비중으로 검색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59)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3張 1面. "馬祖曰 道不屬修 若言修成 修成還壞 卽同聲聞 若言不修 卽同凡夫 問作何見解 卽得達道 師曰 自性本來具足 但於善惡上不滯喚作修道."

www.kci.go.kr

> 물들지 않게 하라(但莫染汚). 무엇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가? 단지 '생사의 마음(生死心)'이 있어서 조작(造作)하고 나아가는 것이 모두 더러움에 물드는 것(染汚)이다. 만약 곧바로 도(道)를 알고자 한다면,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 /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만들거나 짓는(造作) 일도 없고, 옳고 그름(是非)도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取捨)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斷常)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이다. / 그러므로 경(經)에서 말하기를 '범부의 행동도 성현의 행동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이니라'고 한 것이다."[60]

라 하여,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마조도일은 '마음이 부처이면서 도(道)이고 또한 無心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에 '평상심'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평상심(平常心)이란 무엇인가?'

마조선사가 위의 법문(인용문) 속에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평상심이란 일체의 조작(造作)·시비(是非)·취사(取捨)·단상(斷常)·범성(凡聖)이 없는 경지'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평상심이란 '성인이니 범부(凡夫)니, 옳은 것이니 그른 것이니'라고 하는 양변(兩邊)에 치우치지 않고, 그 양변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 곧 평상심이라는 뜻이다. 양변을 벗어나면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양변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은 평상심은 곧 중도(中道)이다"[61]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도(道)라는 것은 '일체의 그 어떤 생각(念)이나 마음(生死心)마저도 일으키지 않는 평상심(平常心), 즉 無心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조는,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며 그것이 바로 無心'임을 설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조도일의 선풍(禪風)은 '卽心卽佛 平常心是道(마음이 곧 부처이며, 평상심이 道이다)'를 표방하였다.

앞의 절(節)에서 우리는, 육조혜능의 제2세인 남양혜충의 무심(無心: 마음 쓸 것 없음)은 석가모니의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음)에 귀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

60)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3張 1面. "祖云 道不用修 但莫染汚 何爲染汚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染汚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 何謂平常心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聖 故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61) 무비, 『직지 강설 上』, 290.

www.kci.go.kr

본 절(節)에서는, 육조혜능의 제3세인 마조도일의 무심(無心)은 '마음(心)이 바로 부처(佛)이며 도(道)이면서 무심(無心)이고, 또한 평상심(平常心)이다'라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마음(心)'에 대하여 남양혜충의 시대보다 한 층 더 구체화됨으로써 '無心'을 꽃피우는(開花) 법문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62]

요컨대, '『직지』 상권 마조도일條(조)'에서는, 8세기 후기를 풍미(風靡)하였던 마조도일은 '마음(心)이 곧 부처(佛)이며, 평상심(平常心)이면서 도(道)이고, 무심(無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주장하는 무심선(無心禪)에서의 '無心'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 개화(開花)시킨 선사(禪師)는 바로 마조도일(馬祖道一)임을 파악할 수 있다.

5.2 반산보적의 無心

반산보적(盤山普積: ?-?)선사는, 8세기 후기를 풍미하였던 마조도일이 직접 그 깨달음을 인가(印可)한 제자이다. 따라서 반산보적은 '8세기 말기 및 9세기 초기'에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적은 혜능의 4세이다.

반산보적은 시중(市中)에서 장송가(葬送歌)를 듣고 깨침으로써, 마조도일이 그의 깨달음을 인가(認可: 印可)하였던 인물이다. 즉,

> 반산보적 선사가 어느 날 산문(山門)을 나섰다가 상여꾼의 노래를 들었다(輓歌見). 즉 [상여꾼이] 요령을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붉은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지는데 / 의지할 데 없는 이 혼령(魂靈)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이 때] 상여 아래에서 효자가 곡(哭)하기를 '아이고, 아이고(哀哀)'. / 그 순간 선사[는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뻐하여 [山門으로] 돌아오니, 마조대사가 [반산보적의 깨달음을] 인가(印可)하였다.[63]

62) 馬祖禪의 핵심은, ① 마음이 곧 부처이다(自心是佛), ② 삼계는 마음이다(三界唯心), ③ 道는 닦을 것이 없다(道不用修), ④ 平常心이 道이다(平常心是道) 등으로 정리된다.

63)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7張 2面). "師一日出門 見輓歌 卽振鈴云 紅輪決定沉西去 未委魂靈往那方 幕下孝子哭云 哀哀 師心身踊悅歸來 馬大師印可."

www.kci.go.kr

라 하였다. 즉 보적은, 상여꾼이 '해(紅輪)는 져서 결정코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의지할 데 없는 혼령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하고 있을 때, 상여 아래에서 효자의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에, '저승길은 곧 여기 이 순간(here & now) 이외에 따로 더 무엇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상여꾼의 노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지금・여기(here & now)의 나(我: 自心)가 바로 부처(佛)'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적의 깨달음은, 마조도일이 말하는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라는 선언에 관한 연장선(延長線)에서의 마음에 관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64] 바로 이러한 일화는 8세기 말기(末期)의 중국 선사상(禪思想)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지」 상권 반산보적條'에는 보적선사와 관련된 일화(逸話)와 법어 등이 모두 '5수(首)'가 채택되고 있다. 그 중 제5수(首)인 "마음이 없으니 삼계(三界)도 저절로 없다"에서

> 반산보적 선사가 말하였다. "삼계(三界)[65]에 법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마음을 구하며, 사대(四大)[66]가 본래 공(空)한데 부처가 무엇에 의지하여 머물겠는가?(師垂語云 三界無法 何處求心 四大本空 佛依何住)" / 법진일(法眞一) 선사가 게송으로 말하였다. "삼계가 본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마음이 없으니 삼계도 저절로 없다(法眞一頌云 三界本因心所現 無心 三界自平沉)."[67]

라 하였다. 이 인용문의 대련(對聯)이 되는 두 게송에서 '삼계(三界) 또한 본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無心) 삼계도 법(法)도 부처

64) 그리하여 반산보적은 "마음달이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삼켰네. 빛은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며, 경계 또한 존재하지도 않네. 빛과 경계가 함께 없어지고 나니 다시 무슨 물건인가?(心月孤圓 光呑萬相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忘 復是何物)(「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7張 2面)."이라는 시를 남김으로써, 마음을 달에 비유하여 경계(너와 나, 중생과 부처 등)도 없이 오로지 한마음뿐인 외로운 달(마음: 心)이 온 천지를 비추는 멋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65)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즉 중생이 사는 세계.

66) '지(地)・수(水)・화(火)・풍(風)', 즉 물질의 4大 기본요소.

6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8張 1面.

www.kci.go.kr

도 또한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앞의 절(節)에서 등식(等式)으로 구성한 마조도일의 '마음(心) = 부처(佛) = 도(道) = 무심(無心)'과 대비(對比)하여 보면 '마음이 없으면((無心) 도(道)도 없고 또한 부처(佛)도 없다'는 역등식(逆等式)을 성립하게 함으로써, 결국 '無心은 도(道)와 부처(佛)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직지』 상권 반산보적條(조)'에서는, 8세기말・9세기초에 혜능의 제4세인 반산보적 시대에서의 '無心은 도(道)와 부처(佛)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방법'으로 정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3 남전보원의 道

'『직지』 상권 조주종심'條에는 특이한 항목이 하나 편찬되어 있다. 즉,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이 그의 스승인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5)에게 질문한 법어인 '平常心이 道이다'라는 항목이 조주條에 수록되어 있다.[68]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에게 질문하였다. "무엇이 道입니까?" / "平常心이 道이다." / "또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까?" /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면 곧 어긋난다." / "향하여 나아가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道를 압니까?" / "道는 안다거나 모른다는 것에 속해 있지 아니하니,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妄覺)이요, 모른다면 무기(無記)[69]일 뿐이다. 만약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道에 진실로 통달하였다면, 허공과 같이 탁 트이고 훤히 통할 것이니, 어찌 가히

68) 『직지』의 편찬에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 즉 그 法語나 偈頌의 主體가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항목의 조(條)를 편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위 '평상심이 道이다'라는 항목은 '『직지』 상권 남전보원'條에 編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경한이 『직지』를 편찬할 때에 이 항목을 굳이 조주종심條에 편입한 것은 특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백운선사의 이러한 편집의도는, 아마도 이 항목의 내용이 조주종심 선사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 조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9) 無記: 성질이 善에도 惡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善惡의 어떤 과보(果報)도 초래하지 않는 것. 즉 善 등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뜻이다.

www.kci.go.kr

시비(是非)하겠는가?"/ 조주 선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크게 깨달았다.[70]

라 하여, '平常心이 道이다(常心是道)'라는 주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주제는 혜능의 3세인 마조도일(709-788)에 의하여 먼저 설(說)하여졌다.[71] 따라서 이 주제는 마조도일이 남전보원(혜능의 4세)에 전한 것을 다시 조주종심(혜능의 5세)에게 전수(傳授)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72]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조주종심의 법어는 그 후 한・중・일 삼국의 선종(禪宗)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話頭(화두)'를 많이 남김으로써 간화선(看話禪)[73]을 비롯한 후대의 선승(禪僧)들의 주요 수행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無'자와 '庭前栢樹子(뜰 앞의 잣나무)' 등의 화두가 매우 유명하다.[74]

---

70)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30張 2面. "趙州問南泉 如何是道 泉云平常心是道 師云還假趣向不 泉云擬向卽乖 師云不擬如何是道 泉云道不屬知不知 知是忘覺 不知是無記 若是眞達不擬之道 猶如太 虛廓然虛豁 豈可强是非耶 師於言下大悟."

71) '제5장 1절'의 본문 내용 참조 요.

72) 마조도일의 법을 이은(嗣法) 제자는 ① 백장회해를 비롯하여 ② 남전보원・③ 반산보적・④ 귀종지상・⑤ 대주혜해・⑥ 분주무업・⑦ 서당지장・⑧ 염관제안・⑨ 대매법상 등 130여명의 여러 禪師들을 배출하였다. 그 중 Ⓐ '마조도일 ⇒ 백장회해 ⇒ 황벽희운 ⇒ 임제의현'으로 이어지는 임제종의 계열이 가장 유명하고, Ⓑ '마조도일 ⇒ 백장회해 ⇒ 위산영우 ⇒ 앙산혜적'으로 이어지는 위앙종도 유명하다. 특히 Ⓒ '마조도일 ⇒ 남전보원 ⇒ 조주종심'으로 이어지는 법계에서는, 禪宗 중에서 특히 조주종심에 의하여 가장 많은 話頭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73) 看話禪은 임제종 양기파(楊岐派)의 법맥에서 '양기방회(楊岐方會: 992-1049; 慧能13世) ⇒ 백운수단(白雲守端: 1025-1072) ⇒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 ⇒ 원오극근(圓悟克勤: 1064-1136: 慧能16世) ⇒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로 이어지면서 대혜종고에 의하여 크게 진작(振作)하게 된다. 대혜종고는 공안선(公案禪)을 고취하기 위하여 『正法眼藏(정법안장)』을 저술하고 선풍(禪風)을 크게 진작시키면서 공식적으로 간화선을 표방함으로써, '임제의현의 재흥(再興)'이라 일컬을 정도로 간화선의 선풍이 중국 선종의 대표로 승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간화선의 선풍은 고려말에 중국에 유학하여 석옥청공의 법을 이었던(嗣法)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에 의하여 진작(振作)됨으로써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지금도 간화선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4)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看話禪의 始祖 격이라 할 수 있는 조주종심(778-897)의 수많은 話頭들은 無心의 개화기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화선은 9세기 전기부터 표방된 '話頭'는 12세기 중기의 '대혜종고'라는 태두(泰斗)에 의하여 '看話禪'이라는 거대한 本流로 전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www.kci.go.kr

요컨대, 조주종심條에 수록되어 있는 남전보원의 '평상심이 도(道)이다'라는 주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8세기 후기에 표출된 사상이 9세기 후기까지 전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無心의 결실(結實)

9세기 전기에 중국 선불교(禪佛敎)를 풍미(風靡)한 황벽희운(黃蘗希運: ?-850)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제자인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의 법을 이은(嗣法) 선사이다. 즉 '육조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 백장회해 ⇒ 황벽희운 ⇒ 임제의현'으로 계승되는 법맥에서 황벽희운은 '육조혜능의 5세'이다. 희운은 지금의 복건성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홍주 황벽산으로 가서 출가한 후, 나중에 백장회해의 제자가 되어 그의 현지(玄旨: 法)를 이어받았다. 그는 842년부터 용흥사(龍興寺)에 머물렀고, 848년부터는 배상국(裵相國: 裵休; 791-870)의 청으로 완릉 개원사(開元寺)에 주석(駐錫)하며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희운의 제자로는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인 임제의현이 있다. 희운의 法語集으로는 배휴가 집록한 「傳心法要」가 있다.[75]

「직지」 상권 '黃蘗[希]運禪師조(條)'에는 무려 '15수(首)'나 되는 제일 많은 법어(法語)들이 채택되고 있다. 「직지」의 편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중 '無心'과 직접 관련되는 법어는 '5수'에 이른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2首(수)'인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에서

> [황벽]선사는 다시 말하였다. "이 본원청정(本源淸淨)한 마음의 본바탕(心體)[76]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으며 두루 비추건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見聞覺知)만을 인정(認)하여 이것을

75) 이 책에는 禪家의 心法에 관한 大意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76)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www.kci.go.kr

> 마음으로 삼으니, 이 견문각지에 뒤덮여서(覆: 顚倒) 뛰어나게 밝은 마음의 본바탕(本體)을 볼(覩) 수 없다. 다만 **당장에(直下) 무심(無心)하기만 하면 [마음의] 본바탕(本體)은 저절로 나타나리니**,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시방(十方)을 비추어서 아무런 걸림(障碍)이 없는 것과 같다"[77]

라 하여, 희운은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마음의 본바탕(心體), 즉 깨달음(佛性)은 저절로 나타난다.'라고 단정(斷定)하고 있다. 이러한 법어는 마조도일에 의하여 개화(開花)된 無心이 드디어 황벽희운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희운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無心'에 대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단정적으로 '당장에 無心하라'는 설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황벽선사와 그 제자들에게는 이미 '無心'에 이미 아주 친숙(親熟)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도직입(單刀直入)[78]적으로 설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無心은 '9세기 전기의 후반기'에 황벽희운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희운은 '우리 마음의 본바탕(心體)은 본래 청정(淸淨)하며 둥글고 밝은데,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見聞覺知)'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 견문각지에 뒤덮여서(覆) 자기 마음의 본래 실체(本體)를 못 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황벽선사는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은 우리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 된다.'고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장에 무심해질 수 있는가?'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남아있다.

둘째,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4수(首)'인 "無心이 곧 法이다"에서

> [황벽선]사는 또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부처님들(諸佛)은 모두 마음

7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4張 2面 - 第25張 1面. "師又曰 此本源淸淨心體 常自圓明徧照 世人不悟 只認見聞覺知爲心 爲見聞覺知所覆 所以 不覩精明本體 但直下無心 本體自現 如大日輪昇於虛空 徧照十方 更無障碍."

78) 생각과 분별과 말에 거리끼지 않고 진실의 경계로 바로 들어감.

www.kci.go.kr

> 의 법(心法)을 전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곧 말하기를, '마음 위에 별도의 법이 있어서 증득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여겨 결국 마음으로 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곧 법이며 법이 곧 마음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求)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천만 겁을 수행한다 하여도 끝내 얻을 날이 없다. **당장에 무심(無心)하기만 하면** 그것이 본래 법(法: 眞理; 참된 이치)이다."[79]

라 하였다. 즉 희운은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心: 法)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당장에 無心하라. 그것이 본래 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法'[80]은 과연 무엇을 의미함인가?

그 해답의 열쇠는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3수(首)'인 "마음과 경계(境界: 境)[81]를 모두 잊어야 참다운 法이다"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 [황벽선]사는 또 말하였다. "범부(凡夫: 衆生)는 경계(境[界])를 취하고, 도인(道人)은 마음(心)을 취한다.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야 참다운 법(眞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텅 비어 잡거나 찾을 곳이 없는 곳인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空은 본래 공(空)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참다운 법계(法界)일 뿐임을 알지 못하는구나!"[82]

라 하여, 황벽선사는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어야 참다운 법(法)'임을 강조하고

---

79)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5張 1面. "師又云 世人聞道諸佛皆傳心法 將謂心上別有一法 可證可取 遂將心覓法 不知心卽是法 法卽是心 不可將心 更求於心 歷千万劫修 終無得日 不如當下無心 便是本法."

80) 황벽희운은 「전심법요」에서 '法'에 대하여, "모든 법은 본래 가질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음을 명확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는다(決定知一切法 本無所有 無依無住 無能無所 不動妄念便證菩提)"라 하였다.

81) 境界: 境; 감각기관(根) 및 인식(認識)을 주관하는 마음(識)의 對象을 가리킨다. 즉 '눈(眼)'과 '안식(眼識: 視覺)'에 의하여 보게 되는 '색(色: 빛・모양)'이 그것이다.

82)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5張 1面. "師又云 凡夫取境 道人取心 心境雙忘 乃是眞法 忘境猶易 妄心至難 人不敢妄心 恐落空無撈摸處 殊不知空本無空 唯一眞法界耳."

www.kci.go.kr

있다. “세상만사를 둘로 나누면, ‘마음과 경계’이다. 보통 범부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경계를 취한다. 그러나 도(道)를 깨달은 사람들은 일체 존재의 주체인 마음을 취한다. 하지만, 마음도 잊어버리고 경계도 잊어버려야 그것이 진실한 법이다”[83]라는 관점에서 보면,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法’은 ‘마음도 잊어버리고 경계도 잊어버려야, 그것이 진실한 법(眞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無心이 곧 法이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法’은, 바로 위와 같이, ‘마음(心)과 경계(境)를 둘 다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에서의 당장에 무심해지는 방법론은 곧 ‘당장에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6수(首)’인 “無心이 도(道)를 행(行)하는 것이니”에서는,

> [황벽선]사가 말하였다. “無心이 곧 도(道)를 행(行)하는 것이니, 다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함을 말하는 것인가? 문득 한 생각(一念)이 일어나면 곧 경계(境: 境界)요, 만약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이니라. 망령된 마음(妄心)이 저절로 소멸하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느니라.”[84]

라 하여, 희운은 이 법어의 첫 구절에서 ‘無心이 곧 도(道)[85]를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無心(무심)’ 이외의 또 다른 키워드(要語)로 ‘一念(일념)’이 주목된다. ‘一念’과 관련된 법어는, 이 법어의 바로 앞의 법어에서 설법하고 있다. 즉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5수(首)’인 “마음의 불생불멸(不

83) 무비, 「직지 강설 上」, 312.

84)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5張 2面. “師云 無心卽便是行此道 更說什麽得與不得 且如瞥起一念 便是境 若無一念 便是境 妄心自滅 無復可追尋.”

85) 황벽희운은 「전심법요」에서 ‘道’에 관하여 “도(道)에 방향과 장소가 없는 것을 일러 ‘대승의 마음(大乘心)’이라 한다. 이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그 사이에 있지도 않으니, 참으로 방향과 장소가 없으므로 결코 알음알이(知解)를 낼 수도 없다. 다만 그대에게 말하노니, 지금 분별심으로 헤아림이 끝난 곳이 곧 道이다. 분별심으로 헤아림이 끝나면, 마음에는 방향도 장소도 없다(道無方所 名大乘心 此心不在內外中間 實無方所 第一不得作知解 只是說汝 如今情量盡處爲道 情量若盡 心無方所)”라고 하였다.

www.kci.go.kr

生不滅)이 부처이다"에서

> [황벽선]사는 또 말하였다. "道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의 불법(佛法)을 모두 다 배울 필요(用)도 없이, 오직 구함이 없고(無求) 집착이 없음(無着)만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도 않을 것이니,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不生不滅) 이것이 바로 부처(佛)인 것이다.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한 생각(一念)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할지니, 한 생각만 있어도 도(道)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相)이 없고 생각마다 함(爲)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86]

라고 하여, '道(도)'와 '一念(일념)'에 관하여 설법하고 있다. 황벽선사는 '도(道)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오직 구하지 않으면(無求) 마음이 생기지 않고(心不生), 집착이 없으면(無着) 마음이 멸하지도 않으니(心不滅), 마음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면 그것이 곧 부처(佛)'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도(道)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고자(成佛)'하는 그 한 생각(一念)마저도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6수(首)'인 "無心이 도(道)를 행(行)하는 것이니"에서 제시된 無心은 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한 생각(一念)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위 인용문에서 '한 생각(一念)이 일어나도, 또는 한 생각이 없어도 곧 경계(境)'[87]라는 구절을 유의하여 전체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처가 되겠다(成佛)는 한 생각(一念)마저도 저절로 소멸된 마음'이 바로 '無心'이며, 이 無心이 곧 도(道)를 행(行)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6)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5張 1-2面. "師又云 學道人 若欲得成佛 一切佛法總不用學 唯學無求無着 無求卽心不生 無着卽心不滅 不生不滅 卽是佛 學道人 只怕一念有 卽與道遠矣 念念無相 念念無爲 卽是佛."

87) 境은 六根(眼・耳・鼻・舌・身・意)의 對象을 말한다. 즉, 色境・法境 등을 말하는 것으로, 六境은 六塵이러고도 하는데, 이것은 티끌과 같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넷째,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0수(首)'인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에서

> [황벽선사가] 또 말하였다. "선(善)과 악(惡)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곧 삼계(三界)[88]를 벗어난 곳이다. 여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삼유(三有: 三界)[89]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無一切心) 삼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90]

라 하여,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無一切心) 삼계(三界)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無心은 '선과 악(善惡),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하거나 미워함, 나와 너라는 항상 상대적인 편견과 치우친 생각 등 일체(一切)의 그러한 모든 마음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황벽희운의 '無心(無一切心 三界亦非有: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은 마조선(馬祖禪)에서의 '三界唯心(삼계는 오직 마음이다)'에서 확실히 진일보(進一步)함으로써, '三界唯心'에서 '無一切心'으로 마음(心)에 대한 깨달음(悟)의 방법론을 진전·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조선에서 '無心이 개화(開花)'한 이후, 황벽희운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無心의 결실(結實)'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5수(首)'인 "당장에 無心하라"에서

> 황벽 선사가 또 말하였다.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지 못하면 비록 무한한 세월을 지나더라도 성스러운 도(道)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 능히 당장에 無心하면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 궁극적인 경지[道])이다(又云 學道人 若不直下無心 縱經塵劫不成聖道 若能直下無心 便是究竟)."[91]

---

88) 중생이 사는 세 세계. 즉,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89) '有'는 존재(bhava)라는 뜻으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삶(生存)을 말한다. '三有'는 삼계에서 각기 존재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가리킨다.

90)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6張 1面. "又云 善惡都莫思量 當處便出三界 如來出世爲破三有 若無一切心 三界亦非有."

www.kci.go.kr

라 하여,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無心하라! 만약 능히 당장에 무심하면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 道), 즉 궁극적인 경지인 도(道)이다'라는 단정(斷定)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게송은 '「직지」 상권 황벽선사條'에서의 결언(結言: 結論)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희운은 '당장에 무심하라(直下無心)'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2-14수(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12수 "본성(本性)은 오고 감이 없다", 제13수 "마음이 법이다", 제14수 "마음이 공(空)하면 경계는 절로 공하다"에서 ① 인간의 본성(本性), ② 심법(心法: 마음의 법)에서의 깨달음, ③ 마음을 방해하는 경계(境界)를 소멸(空)시키는 법 등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이른바 '당장(直下)에 무심(無心)해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첫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2수'인 "본성(本性)은 오고 감이 없다"에서

> 황벽선사가 또 말하였다. "무릇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고자 할 때에는, 오온(五蘊)[92]이 모두 공(空)하고, 사대(四大)는 무아(無我)[93]인 것을 관찰해야 한다. / 진실한 마음(眞心)은 형상이 없어서(無相) 가고 옴이 없다. 태어날 때에도 본성(性: 本性; 佛性)은 오지 않았으며, 죽을 때에도 본성은 역시 가지 않는다. / 지극히 맑으면서 매우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心境一如). /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되면 곧바로 깨달아(直下頓了) 삼계(三界)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간(世間)을 벗어난 사람이다. / 결코, 털끝만큼이라도 나아갈(趣向)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훌륭한 모습과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맞이함(迎) 등이나 갖가지 좋은 일들이 나타나더라도(現前)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 만약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또한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면(妄心) 법계(法界)와 같아서 곧 자재(自在)함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94]

---

91)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6張 2面.

92) 인간의 존재를 물질과 정신으로 오분(五分)한 것, 즉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

93) 일체의 존재는 무상(無常)한 것으로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말.

94)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6張 1面. "又云 凡人臨欲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我 眞心無相 不去不來 生時性不曾來 死時性亦不曾去 湛然圓寂 心境一如 但能如是直下頓了 不爲三界拘繫 便是出世人也 切不得有分毫趣向 若見善相諸佛來迎及種種現前

www.kci.go.kr

라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사람의 진실한 마음(眞心: 性; 佛性)은 형상이 없어서(無相)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등의 경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마음[물]과 경계[물결]가 하나(一如)'[95]가 되기만 하면 곧바로 깨닫는(直下頓了)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간(世間)을 벗어난 사람[解脫人]이다. 그러하니 좋은 일에도 마음을 내지 말고(無心), 나쁜 일에도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말며(無心), 다만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妄心), 그것이 바로 법계(法界)와 같은 자재함이다'라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황벽희운이 제시하는 '無心'은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 것(無心隨去)' 또는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 것(無心怖畏)'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황벽선사는 이와 같이 수식어가 부가된 無心을 곧 '妄心(마음을 잊어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따라가려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운 마음도 내지를 말라'라는 그 어떤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 곧 '妄心'이요 곧 '無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3수'인 "마음이 법이다"에서

> 황벽선사가 또 말하였다.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교법(敎法: 경전)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법(心法)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오랜 겁(劫)을 지내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달으면, 곧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교를 중(重)하게 여겨서 결국 '흙덩이만 쫓아다니는 격'[96]이 되나니, 이는 본래의 마음(本心)을 망각한 까닭이다. / 다만 본래의 마음에 계합(契合)하면 법을 구하지 않아도 마음이 곧 법이다."[97]

亦無心隨去 若見惡相種種現前 亦無心怖畏 但自忘心 同於法界 便得自在 此是要節也."

95) 마음을 '물'이라 보고 경계를 '물결'이라 비유하면, 물결은 물의 표면이 다만 바람에 일렁이는 움직임(파도)일 뿐이다. 즉 '물결'은 곧 물의 표면이 잠시 술렁거리는 것일 뿐 그 본질은 바로 '물'이다. 따라서 물결은 물의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는 하나(一如)이다.

96) '축괴(逐塊)'는 '한로축괴(韓獹逐塊)'를 의미한다. '한로'는 중국 고대 '韓國'이라는 사람이 기르던 개를 말한다. 즉 한로의 개가 흙덩이를 쫓아다닌다는 말로써,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정작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행자를 비유한 말이다.

97)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6張 2面. "又云 學道人 多於敎法上悟 不於心法上悟 歷歷劫修行 終不是本佛 若不於心悟 乃至於敎法上 悟卽輕心重敎 遂成逐塊 忘於本心 故 但契本心 不用求法 心卽法也."

www.kci.go.kr

라 하였다. 즉 황벽선사는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에 반조(返照)하여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법(心法)'을 깨달아야 비로소 '본래의 부처(本佛)'다 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마음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래의 마음에 계합하기만 하면, 굳이 별도로 법(法)을 구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곧 법이다(心卽法)'라 하여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깨달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4수'인 "마음이 공(空)하면 경계는 저절로 공하다"에서,

> 황벽선사가 또 말하였다. "무릇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을 방해하고 사상(事[相])[98]이 이치(理[致])를 방해한다고 여겨서, 항상 경계에서 도망하여 마음을 안정(安[靜])시키려 하고, 事相을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경계에 걸리고, 이치가 事相에 걸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공(空)하게 하면 경계는 저절로 공(空)하여지고, 이치가 고요하면 事相도 저절로 고요하여 진다. 거꾸로 쓰지 말라."[99]

라 하였다. 이 법어는 '마음(心)과 경계(境), 이치(理)와 사상(事相)'에서 어느 것이 과연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음'을 '물'에 비유(比喩)하여 볼 때에, '경계'는 그 물의 표면에 일렁이는 '물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 그 자체가 요동치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만 물의 표면에 지나지 않는 '물결'이 파도(波濤)로 밀어닥쳐 그 포말(泡沫)이 부서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그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양상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물[마음]'을 고요하게(空) 하면, 그 물의 표면인 '물결[경계]'은 저절로 고요해(空)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황벽선사는 이른바 마음(心)을 안정(安靜: 平常心)시키는 방법으로써 '마음을 공(空)하게 하라'는 교시(敎示)를 보이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황벽희운이 "당장에 無心하라"에서의 당장

98) 사상(事相): 本體 眞如에 대하여 현상계(現象界) 하나하나의 차별된 모양.

99) 「直指」 卷上, 장서각소장본(목판본), 第26張 2面. "又云 凡人多爲境导心事导理 常欲逃境以安心 併事以存理 不知乃是心导境理导事 但令心空境自空 理寂事自寂 勿倒用也."

www.kci.go.kr

無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즉 부처가 되는 방법(成佛)은 '① 그 어떤 마음도 내지 말 것(妄心: 마음을 잊어버림), ② 본래의 '마음 법(心法)'을 깨달을 것(契本心: 悟心), ③ 마음을 공(空)하게 할 것(空心)'이라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無心의 結實'은 9세기 전기(前期)를 풍미하였던 황벽희운에 의하여 완성(完成)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100] 따라서 백운화상의 무심선에 대하여 「직지」 상권의 중국선사條 중 '육조혜능부터 황벽희운까지'의 각 條에 편성된 각종 법어와 게송 등에서 無心과 관련한 핵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無心禪은 육조혜능(647-713)에 의하여 배아(胚芽: 胎動[101])되었으며, 남양혜충(?-775: 慧能의 2世)에 의하여 '無心'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발아(發芽)되었고, 마조도일(709-788: 혜능의 3世)에 의하여 개화(開花)하였으며, 9세기 전기의 황벽희운(?-850: 혜능의 5世)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직지」 상권의 편찬 사항에서 혜능의 제5세(世)인 조주종심과 황벽희운 이후에는 '무심'을 그 수행의 주제로 논급하거나 등장시키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02] 따라서 無心禪은 임제종의 開祖인 임제의현(?-866)의 시대 이전인 황벽희운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맺음으로써 완성된 사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103]

---

100) 따라서 무심선은, 임제의현이 개창(開創)한 임제종(臨濟宗)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확립된 조사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임제의현은 황벽희운의 嗣法弟子이기 때문이다.

101) 胎動: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102) 中禪 제124의 지공화상條에서 '十四科頌'의 5-2에서 '無心'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03) 이로써 중국 禪宗 중 曹溪宗, 즉 육조혜능(638-713)으로부터 시작되어 황벽희운(?-850)으로 전해진 法統은 그 후 임제의현(?-867)에게 전해지고, 혜능의 법맥은 임제의현에 의한 임제종(臨濟宗)으로 웅비하면서 전해 내려오던 달마(達磨)와 혜능(慧能)의 정통 법맥이 드디어 '임제의현(慧能6世) ⇒ 홍화존장(7) ⇒ 남원혜옹(8) ⇒ 풍혈연소(9) ⇒ 수산성념(10) ⇒ 분양선소(11) ⇒ 석상초원(12) ⇒ 양기방회(혜능13세: 임제종 양기파) ⇒ 백운수단(14) ⇒ 오조법연(15) ⇒ 원오극근(혜능16세: 1064-1136) ⇒ 호구소륭(虎丘紹隆: 혜능17세; 1077-1136. 임제종 호구파(虎丘派)) ⇒ 응암담화(18) ⇒ 천동함걸(19) ⇒ 피암조선(20) ⇒ 무준사범(21) ⇒ 앙산조흠(22) ⇒ 급암종신(23) ⇒ 석옥청공(石屋淸珙: 혜능24세; 1272-1352) ⇒ 고려 태고보우 및 백운경한(1299-1375: 혜능25세)'으로 계승(嗣法)되는 법맥임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7.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는, '『직지』 상권에 표방되는 무심(無心)은 과연 어느 시대에 처음으로 배아(胚芽)되었고, 누구에 의하여 발아(發芽)되었으며, 어느 시대 어떤 선사(禪師)에 의하여 개화(開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았는가?'를 서지적(書誌的)으로 추적하면서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 본론 각 장의 핵심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백운화상의 無心'에서는 백운화상이 깨달은 바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백운화상이 깨달았다고 하는 '無心'은 '마음에서 그 어떠한 생각(一念)도 일어나지 않고, [상념(想念)이나 번뇌 등] 앞뒤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전혀 기댈 곳이 없어지자, 깊숙한 경지에 이르는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직지』 상권에 수록된 '中國禪師'조(條)에서 육조혜능을 비롯한 7-9세기의 중국선사의 法問・偈頌 등에서 無心과 관련된 '無念・無心・平常心・道' 등의 핵심 요어들을 검색・추출하고 이를 <표 1>로 제시하였다. 이 표에 의하여 육조혜능의 남종선(南宗禪)에서, Ⓐ '無念・無心'이라는 용어 및 개념은 언제 누

여기에서 특히 주목(注目)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석옥청공은 무심선(無心禪)을 매우 중요시(重要視)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석옥청공은 입적(入寂)하기 직전에 '세상과 이별하는 노래, 즉 <사세송(辭世頌)>을 남기면서까지 백운경한에게 자신의 법을 잇게(嗣法)하였던 것이다. <전법게(傳法揭)>를 겸하는 석옥청공의 <사세송>은 석옥의 중국인 제자인 法眼禪人이 고려로 직접 건너와서 손수 백운경한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즉,

> 흰구름(白雲) 사느라 맑은 바람 모두 팔았더니 / 온 집안이 텅 비어 뼈 속까지 비었네. / 남아있는 한 칸 초가집은 / 길 떠남에 병정동자에게 건네주노라(白雲買了賣淸風 散盡家私澈骨窮 留得一間茅草屋 臨行付與丙丁童).

라 하였다. 석옥청공은 입적(入寂)하면서 임제종 호구파의 법통(法統)을 고려의 백운경한에게 물려줌(嗣法)을 천명(闡明)하는 <전법게(傳法揭)>의 게송을 남긴 것이다. 이 게송은 『백운화상어록』에서 기록(記錄)으로 명료하게 남아 있다. <전법게>의 첫머리에는 백운화상 경한의 호(號)인 '白雲'을 직접 명시(明示)하였고,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세상의 길을 떠남에 한 칸 초가집[자신의 法統]을 병정동자(백운화상)에게 건네주노라'라고 또한 분명하고 운치(韻致)있게 드러내 보이고(明示) 있다.

www.kci.go.kr

구에 의하여 비로소 언급되었는가?를 '無心의 배아(胚芽)' 단계로 보고, Ⓑ '무념・무심이라는 씨앗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싹트게 되었던가?'를 '무심의 발아(發芽)' 과정이라고 보며, Ⓒ '무심이라는 개념 및 본체(本體: identity)는 그 어느 시대의 특정인에 의하여 어떻게 강조됨으로써 활짝 꽃피우게 되었는가?'를 '無心의 개화(開花)' 단계라 보고, Ⓓ '無心은 언제 어떤 인물이 어떻게 논술됨으로써 그 결실(結實)을 맺게 되었는가?'를 '無心의 결실(結實)' 단계로 구분한 후, 그 각각의 단계 및 과정의 핵심 내용들을 서지적(書誌的)으로 정리・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제3장 '無念・無心의 배아(胚芽)'에서는, 첫째로 '『직지』 상권 六祖[慧能大師조(條) 제10首'인 "생각이 없으면(無念)" 등에서, '無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無念・無心'이라는 용어는 육조 혜능에 의하여 직접 그 씨앗(種子: 胚芽)이 뿌려짐으로써 남종선에서 비로소 확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혜능이 법을 펴기(弘法)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7세기 후기'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무념'의 개념은 '無我의 경지에 이르러 그 어떠한 망상(妄想)도 없는 상태'를 의미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혜능의 시대에는 '無心'이라는 용어는 아직 등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로 '『직지』 上卷 荷澤神會禪師조의 제1首'인 "무념(無念)이 최상승(最上乘) 법(法)이니" 등에서, 8세기 전기 하택신회는 '眞如(깨달음(佛性))는 곧 無念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혜능의 시대보다 無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하택신회의 무념'은 혜능의 무념에서 진일보(進一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제4장 '無心의 발아(發芽)'에서는, '『직지』 上卷 [慧]忠國師'조(條) 제8수(首), "부처(佛) 또한 無心이다"라는 법어 등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남양혜충(南陽慧忠: ?-775)의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무심은 8세기 중기에 남양혜충 국사(國師)에 의하여 발아(發芽)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양혜충의 無心(마음 쓸 것 없음)은, 불교의 교조(敎祖)인 석가모니가 제시한 '방하착(放下[着]: 마음을 내려놓음)'에도 귀결(歸結)되는 것임을 파악할 수

www.kci.go.kr

있었다.

넷째, 제5장 '無心의 개화(開花)'에서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무심'과 '반산보적의 무심' 그리고 '남전보원・조주종심(趙州從諗)의 도(道)'로 구분하여 그 세부상항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직지」上卷 馬祖(條) 제1수(首)'인 "무심(無心)이 도(道)이다" 등의 '馬祖道一'조에서는, 8세기 중기・후기를 풍미(風靡)하였던 마조도일(709-788: 六祖慧能의 第3世)의 無心은 '마음(心)이 바로 부처(佛)이며, 平常心이 도(道)이면서 또한 무심(無心)이다'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마음(心)'에 대하여 남양혜충의 시대보다 한 층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마조도일은 8세기 중기 시대부터 '無心'을 활짝 꽃피웠음(開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백운화상이 주장하는 무심선(無心禪)에서의 '無心'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 개화(開花)시킨 禪師는 바로 마조도일(馬祖道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마조도일의 법을 계승한 반산보적과 관련하여, '「직지」상권 반산보적'條 중 제5수(首)인 "마음이 없으니 삼계(三界)도 저절로 없다"에서는 8세기말・9세기초에 혜능의 제4세(世)인 반산보적 시대에서의 '無心은 도(道)와 부처(佛)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방법'으로 정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로 '「직지」상권 조주종심'條에는 남전보원의 법문(法問)인 '平常心이 道이다'라는 항목이 채택되고 있다. 이 주제는 마조도일의 嗣法弟子인 남전보원(748-835: 혜능의 제4세)에 의하여 다시 그 제자인 조주종심(778-897)에게 '平常心是道'에 관한 法問이 傳授된 사항이 위의 조에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주종심의 법어는 後代에 한・중・일 삼국의 禪宗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話頭'를 많이 남김으로써 看話禪을 비롯한 후대의 禪僧들의 주요 수행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無'자와 '庭前栢樹子(뜰 앞의 잣나무)' 등의 화두가 매우 유명하다. 간화선의 시조(始祖) 격이라 할 수 있는 조주종심의 많은 화두들은 '無心의 개화기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화선은 9세기 전기에 無心의 主流에서 파생된 '話頭'라는 하나의 支流가, 後代인 12세기 중기에 와서는, 대혜종고라는 태두(泰斗)에 의하여 '看話禪'이라는 거대한 本流

www.kci.go.kr

로 전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제6장 '無心의 結實'에서는, 황벽희운(黃蘗希運: ?-850)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백운화상은 『직지』를 편찬하면서 '黃蘗希運禪師'조에서 무려 '15수(首)'나 되는 가장 많은 法語들을 채택하여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無心'과 직접 관련되는 법어는 무려 '5수'에 이르고 있다.

첫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2首(수)'인 "당장에 無心하기만 하면"에서는, '당장에(直下) 무심(無心)하기만 하면 [마음의] 본바탕(本體: 實相)은 저절로 나타나리니'라 하여, 황벽선사는 마음에서 곧바로 무심해질 것을 설법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황벽선사와 그 제자들에게는 이미 '無心'의 의미가 아주 친숙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無心을 곧바로 설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無心은 9세기 전기에 황벽희운에 의하여 그 결실(結實)을 보았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4수(首)'인 "無心이 곧 法이다"에서는, 당장에 무심해지는 방법론은 곧 "당장에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라! 그것이 바로 無心이다"라는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6수(首)'인 "無心이 도(道)를 행(行)하는 것이니"에서 제시된 無心은 바로 '부처가 되겠다는 한 생각(一念)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함을 파악하였다.

넷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0수(首)'인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에서 '無心(無一切心 三界亦非有: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은 마조선(馬祖禪)에서의 '三界唯心(삼계는 오직 마음이다)'에서 확실히 진일보(進一步)함으로써 '三界唯心'에서 '無一切心'으로, 즉 마음(心)에 대한 깨달음(悟)의 방법론을 마조의 시대보다 한 단계 더 진전・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마조선에서 '無心이 開花'한 이후, 황벽희운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無心의 結實'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로 '『직지』 상권 황벽[희]운선사條(조)의 제15수(首)'인 "당장에 無心하라"에서의 당장 無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즉 부처가 되는 방법

www.kci.go.kr

(成佛)은 '① 그 어떤 마음도 내지 말 것(妄心: 마음을 잊어버림), ② 본래의 '마음법(心法)'을 깨달을 것(契本心: 悟心), ③ 마음을 공(空)하게 할 것(空心)'이라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無心의 결실(結實)'은 9세기 전기와 중기를 풍미하였던 황벽희운에 의하여 확립(確立)·결정(結晶)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직지」 상권 육조혜능 - 황벽희운'條에 걸친 여러 法問과 게송들에서 無心과 관련한 핵심 要語들을 검색하고 분석하여 본 결과, 無念·無心은 7세기말·8세기초에 육조혜능(六祖慧能)에 의하여 그 씨앗(種子)이 뿌려짐과 동시에 배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남양혜충(?-775: 慧能의 第2世)에 의하여 '無心'이 정식으로 발아되었으며, 8세기 후기에 마조도일(709-788: 혜능의 3世)에 의하여 무심은 활짝 꽃피우게(開花)되었고, 9세기 전기에 황벽희운(?-850: 혜능의 5世)에 의하여 無心은 드디어 그 결실을 봄으로써, 무심(無心)은 여기에서 그 종결(終結)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지」 상권에서 황벽희운의 사법(嗣法)제자인 임제의현 이후, 즉 임제종(臨濟宗)의 역대 조사의 사항 등에서 '無心'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104]

따라서 무심선(無心禪)의 사상(思想)은 임제종(臨濟義玄: ?-866)이 성립되기 그 이전, 즉 육조혜능부터 혜능의 5세(世)인 황벽희운의 시대까지의 5대(代)에 걸쳐서 완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심선은 임제종 계파(系派)의 직계 선대(先代)의 문중(門中)에서 조직적으로 결성(結成)됨으로써 조사선(祖師禪)의 원류(源流: 思想)에 해당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위와 같은 무심(無心)의 사상이 임제종에서 면면히 전수(傳授)됨으로써 12세기 이후 임제종 호구파(虎丘派)의 사상적 기저(基底)가 되었으며, 호구파의 법맥을 이어온 석옥청공(육조혜능의 24世)은 고려의 백운화상 경한에게 그 정법(正法: 無心)의 법통을 잇게(嗣法)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백운경한은 고려로 귀국하여 '무심(無心)의 참된 마루(眞宗)'를 선양(宣揚)하였음을 파

104) 다만, '中禪 제124'의 '지공화상'條에서 <十四科頌>의 5-2에서 '無心'이라는 용어가 단 한 차례 등장한다.

www.kci.go.kr

악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무심선(無心禪)은 혜능의 남종선(南宗禪), 즉 육조선법의 정통을 계승한 조사선(祖師禪)의 본질(本質)임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원전(原典)

白雲景閑.「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所藏). 木板本.

白雲景閑.「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下卷.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所藏). <청주고인쇄박물관> 天然色(칼라) 影印本. 金屬活字本.

白雲景閑.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韓國佛敎全書」第六册.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04-636.

釋璨(錄). "白雲和尙語錄."「韓國佛敎全書」第六册.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釋璨(錄). "白雲和尙語錄."「韓國高僧集」高麗時代三. 서울: 경인문화사, 1974.

太古普愚. "太古集."「韓國高僧集」高麗時代三. 서울: 경인문화사, 1974.

太古普愚 著, 雪栖 編. "太古和尙語錄."「韓國佛敎全書」第六册.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669-701.

2. 단행본 및 논문 등

김성수. "백운화상의 '無心'에 관한 서지적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2012. 11), 119-146.

김월운.「전등록」. 서울: 동국역경원, 2008.

김태완 역주.「마조어록」. 고양: 침묵의 향기, 2012.

동국대[학교] 역경원 譯.「直指」. 청주: 청주시청, 2006.

www.kci.go.kr

無比(譯註).「백운스님 어록」. 서울: 민족사, 1996.
마해륜. "作用卽性 비판으로서의 無心."「불교학연구」제35호(2013. 6). 61-98.
무비스님.「직지 강설」上・下. 서울: 불광출판사, 2011.
柳田聖山 著, 서경수・이원하 역.「禪思想」.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4.
安法山 編譯.「高麗 白雲語錄」. [평창]: 靈鑑寺, 1990.
永嘉玄覺 著, 慧業 編譯.「禪宗永嘉集: 附錄 證道歌」. 서울: 불광출판부, 1992.
李哲敎 譯.「白雲直指: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우리말 번역본. 미간행본.
정병조. "白雲의 無心禪에 관하여."「韓國佛敎學」제3집(1995). 273-281.
鄭性本.「中國禪宗의 成立史硏究」. 서울: 民族社, 1991.
정제규.「마음을 노래한 글, 직지」. 청주: 충청북도, 2006.
至柔(編), 李英茂(譯).「석옥청공선사語錄」. 서울: 불교춘추사, 2000.
진성규. "조계종의 발전과 임제종의 수용."「한국사상사입문」. 서울: 서문문화사, 2006. 167-183.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파주: 태학사, 2008.
최석환 편저.「석옥・태고 평전」. 서울: 불교춘추사, 2010.
慧能(著), 淸華 譯註.「六祖檀經」. 서울: 광륜출판사, 2003.
혜능 지음, 단칭선사 풀어씀, 김진무 옮김.「혜능 육조단경」. 서울: 일빛, 2010.
혜능 지음, 광덕 번역.「육조단경」. 서울: 불광출판사, 2011.
慧諶(著), 김월운 옮김.「禪門拈頌(集)」1. 서울: 동국역경원, 1994.
혜원 편저. "선종 법계도."「禪語事典」. 서울: 운주사, 2011. 488-489.

www.kci.go.kr

www.kci.go.kr